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등록번호 다-467 / 발행인 김정석 / 발행처 광림교회 서울 강남구 논현로 175길 49 TEL 2056-5600 / www.klmc.church



전교인 체육대회, 모두가 하나되는 화합의 장

5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다

광림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제20회 전교인체육대회가 5월 27일(토) 오전 9시부터 한양대 올림픽체육관에서 열린다.
'다시 뛰자! 광림, 다시 보자! 광림'이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이며, 성도 모두가 즐겁고 하나되는 화합의 장을 목표로 한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와 공동체 활동이 어려웠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과 광림교회 공동체 일원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은혜로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전교인이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전체 교인을 믿음(1,3선교구, 남교회), 소망(6,7,10선교구), 사랑(8,9선교구, 북교회, 서교회), 화평(2,4,5선교구) 4팀으로 나눠, 각각 다른 색 유니폼을 입고 자리에 앉게 되며, 청장년부, 청년부, 교육부, 사랑부는 별도의 자리를 배치 받는다.
영유아와 함께 온 교인을 위해 체육관 3층에 보호실을 마련하여 바닥매트 및 메인 경기장 중계용 모니터를 설치한다. 4층 복도공간에는 아이들을 위한 키즈존으로 어린이용, 유아용 에어바운스 3세트와 테이블 등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페이스페인팅, 솜사탕, 팝콘, 슬러시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행사는 당일 오전 9시에 전교인과 선교구별 대표 선수들이 중앙 대회장으로 들어서면 개회예배에 이어 국민의례, 대표선서, 개회선언의 순서로 진행된다.
본격적인 경기에 앞서 개막행사인 현수막 파도 퍼포먼스, 준비체조 및 응원전이 펼쳐지게 되며, 운동경기 1부는 박 터트리기, 비전풍선탑 세우기, 판 뒤집기 등의 명랑운동회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어 점심시간에는 어린이 이벤트로 보물찾기를 진행한다. 오후 운동경기 2부에서는 줄다리기, 피구, 계주 등 미니 체육대회 형식의 경기를 하게 되며, 매 게임마다 참가자들에게 푸짐한 선물이 지급된다.

오후 5시 경기를 마치면 교회창립 70주년 홍보 영상과 태권도 시범단 공연이 펼쳐지고, 폐막행사인 LED 빛 세션 퍼포먼스에 이어 순위발표 및 시상과 경품추첨 시간을 갖는다. 선물은 팀별로 배포하고 경품추첨은 선교구별로 하는데 가장 큰 상품인 냉장고, TV, 에어컨, 무선청소기, 스타일러, 노트북 추첨은 전교인을 대상으로 한다.

행사장으로 가는 교통 편의를 위해 각 선교구별로 차량이 제공되며 광림교회에서 한양대 체육관으로 가는 셔틀버스는 오전 8시부터 9시 20분까지 5대 운영된다. 대중교통은 지하철 2호선 한양대역에 내리면 되고, 자가용 이용시에는 한양대학교 내 3군데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남선교회가 전체적인 진행을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여선교회, 실업인선교회, 장로회가 후원 한다. 박기연 장로(남선교회총연합회장)는 "4월 총력전도에 이어 5월에 체육대회를 갖는데 아직 코로나 이전으로 예배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전교인이 함께 하는 행사인 만큼 그 중요성과 의미가 크다. 이번 체육대회를 계기로 앞으로 많은 교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전처럼 교회의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득섭 기자



2 광림의 강단 성령을 따라 살라
3 광림 스토리 지구장 세미나
4 하나님을 만나다 어버이주일 남성성가단 찬양
5 믿음의 현장 청장년부 레츠고페스티벌
7 다음세대 청년부 단기선교팀 모집
8 복음, 문화와 만나다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성령을 따라 살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갈 5:16)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중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강력한 음성과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이후부터 삶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며, 진리로 인한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둘째로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속사람, 성품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고, 미래가 달라집니다. 셋째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강팍했던 심령이 회복되고 새로워집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누리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지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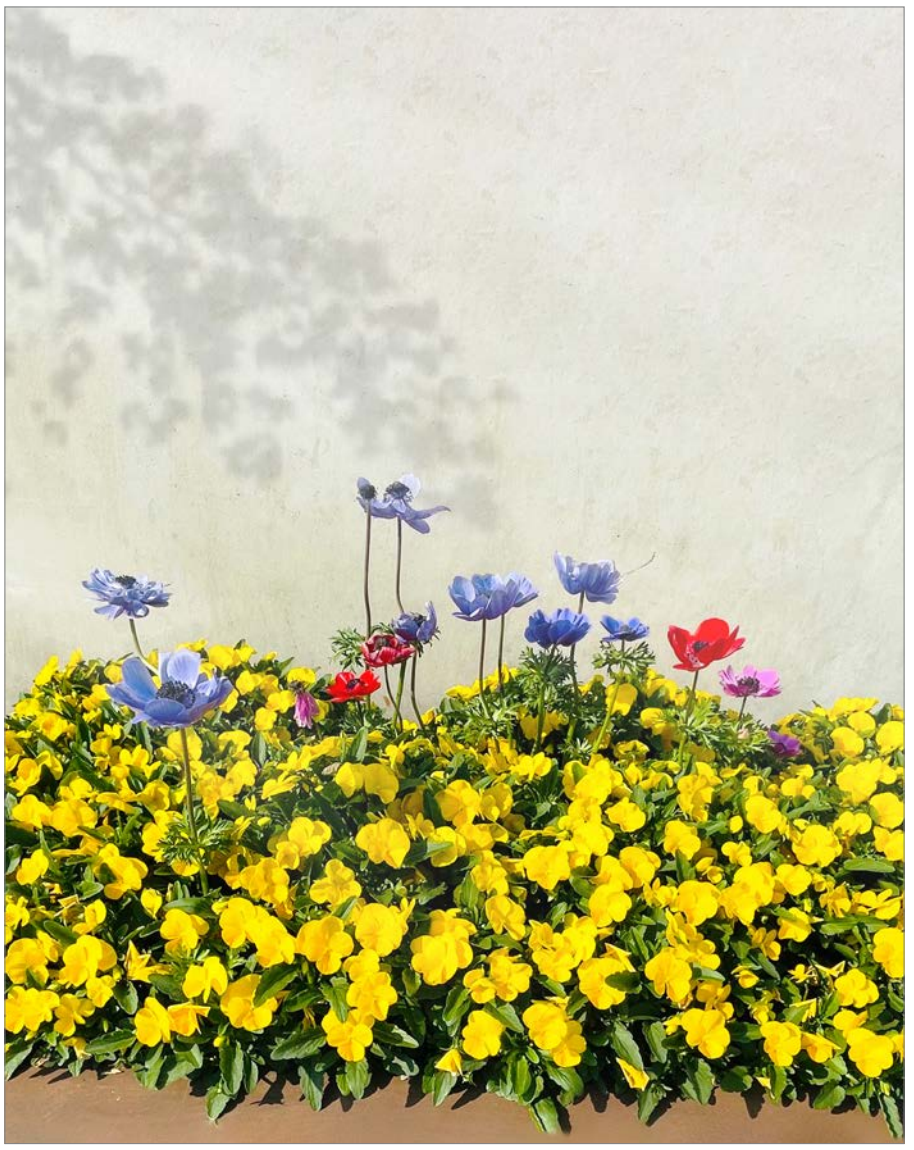
본문 16절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9~21절은 육체의 욕심에 대해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이기적인 생각, 사단의 생각 모두 본문이 말하는 육체의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것들을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욕심과 욕망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실패와 좌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나친 욕심과 욕망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실패와 좌절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자족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깨끗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16~24

16.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둘째, 거룩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레 11:45) 거룩은 구별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차원 높은 삶, 거룩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본문 18절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 앞에 있는 천사에게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나와 함께 영광스런 감리교 운동을 했던 친구들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와 있습니까?'

천사는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생명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얼마 후 천사는 '미안하지만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경건의 생활을 하고 복음운동을 했는데, 어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까?'라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이 잘못되었군요.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칼빈의 교리를 따르는 장로교인들은 천국에 얼마나 왔습니까?'

천사가 천국인명부를 한참 보더니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장로교인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회를 개혁한 이들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라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러면 천주교인들은요?' '천주교인도 없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온다는 말입니까?' 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매일매일 거듭나는 사람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전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열매를 맺습니다. 본문 22~23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열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상처받은 사람이 위로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소망 없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루아침에 변화되지는 않더라도 이슬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조금씩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삶에서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나누어 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과 유혹을 이겨내고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마 5:13~14)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맛을 잃은 이 세상에서 맛을 내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의 존재로 어두움을 밝히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영상은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23 〈지구장 세미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위한 결속과 도전



하나님 나라와 광림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지구장들을 위한 〈지구장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 세미나는 두 번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로 5월 3일(수) ~ 4일(목)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속초 델피노 리조트에서 1, 5, 7, 8, 9선교구와 광림남교회·서교회·북교회 지구장들이 참석해 큰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각 교구의 지구장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은 사명을 마음과 삶에 되새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미나에 참석한 지구장들은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고 양육되어 속회를 잘 인도하며 속원과 속장들을 믿음으로 세워나갈 것을 다짐했다. 나아가 코로나 이후 광림교회의 부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쓰임 받기로 결단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체험했다.

첫째 날 저녁 특강에서 김정석 담임목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는 교회"(계 2:1~7) 라는 주제로 소아시아 7개 교회 중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전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속회와 선교회를 활성화하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구장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적인 마음인 처음 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다.

다음날 김정석 담임목사의 인도로 새벽기도를 드릴 때는 말씀의 주제인 '소생케 하는 사람'이 되길 뜨겁게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어갔다.

기도를 통한 영적 충전뿐 아니라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설악산 자생식물원에서 숲해설을 들으며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고, 주변 둘레길을 걸으며 서로가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나누고 안부를 물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의 시간도 나누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전통민속마을인 왕곡마을을 찾아 오봉교회를 둘러보기도 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고은경 권사(20교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구장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교구가 재편성되면서 서로 모르던 권사님들을 알게 되어 반가웠고, 코로나 동안 단절되었던 교제의 시간이 회복되어 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담임목사님 말씀으로 받은 영적 에너지를 속회와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나누기를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했다.

2차 세미나는 5월 22일(월) ~ 23일(화) 2, 3, 4, 6, 10선교구 지구장을 대상으로 열린다.

소현수 기자



웨슬리신학대학 학위수여식, 이사회 참석

김정석 담임목사 잠비아 광림미션센터 소개 및 협조 당부





5월 8일(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국립 대성당(Washington National Cathedral)에서 웨슬리신학대학의 학위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웨슬리신학대학은 미국연합감리교회에 소속된 13개의 신학교 중 하나로 1882년에 세워진 유서 깊은 목회자 전문 양성기관이다.

이 학교의 목회학 박사과정에서 많은 한국의 목회자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논문이 매년 발표되고 있다.

김선도 감독님도 이 학교에서 종교교육학 석사학위(M.R.E)와 명예신학박사학위(D.D)를 받았으며, 김정석 담임목사는 오랜 기간 국제이사로 섬기고 있다.

특별히, 올해 학위수여식에는 김정석 담임목사가 대표기도자로 초청받아 참석하였다.

다음날부터 열린 이사회에서 담임목사는 잠비아에 세워지는 광림미션센터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웨슬리신학대학, 옥스퍼드 선교대학원, 한국 교회가 함께 세우는 잠비아 광림신학교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잠비아 광림신학교는 잠비아 주변의 8개국을 포함해 아프리카 권역에서 많은 목회자를 모집하여 신학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미국의 웨슬리신학교는 기초신학을, 옥스퍼드선교대학원은 선교학을,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영성과 돌봄 목회에 대해 강의를 담당하기로 했으며, 오는 5월 29일 미션센터를 봉헌하고 선교사역을 시작한다.

특별히 웨슬리신학대학 이사들은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총장인 데이빗 맥알리스터-윌슨(David McAllister-Wilson) 박사와 부총장인 신경림 박사가 잠비아 광림미션센터의 봉헌식에 참석하기로 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포토 뉴스



성가대실 리모델링
4월 29일, 성가대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김정석 담임목사가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의료선교회 건강강좌 시리즈(1)
5월 7일, 성인병 관리와 치료에 대한 건강강좌가 있었다.



여선교회 자녀를 위한 기도회
5월 7일, 여선교회는 본당 대예배실에서 월례회와 기도회를 열었다.

담임목사 동정



5/2 트리니티성서대학원

5/3~4 지구장세미나

5/7 유아세례(2)

5/8~12 웨슬리신학대학교 이사회 참석

및 학위수여식 대표기도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어버이주일 음악예배

남성성가단, 여성 탈북합창단 '물망초' 합동 공연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인연을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달이다. 광림교회는 5월 14일을 어버이주일로 정하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정성껏 길러주신 부모님의 높고 깊은 은혜를 기리고 있다.

광림교회 교육국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교육국 전도사들이 2부와 3부 예배에 오시는 어르신들께 베풀어주신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본당 입구에서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행사를 진행한다.

어버이주일 저녁예배는 광림교회 대예배실에서 광림교회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남성성가단(단장 이남용 권사) 주관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기쁘게 하라>는 주제로 풍성한 음악예배를 드린다. 이번 음악회는 남성성가단과 사랑부, 연합오케스트라가 출연하며 탈북여성합창단 물망초를 초청하여 은혜로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약 80여명으로 구성된 남성성가단은 1부, 3부 스테이지에서 '어머니', 'I Love You Lord', 'Marching' 등 6곡을 웅장하고 아름다운 합창으로 선사하고, 사랑부에서는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오카리나 선율로 들려준다. 2부 스테이지에서는 35명의 물망초 여성 합창단이 '아버지', '엄마야 누나야', '주 날 인도하시네'를 부르며 광림교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남성성가단과 물망초 합창단 모두 박창석 지휘자가 맡고 있다.

광림남성성가단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남성성가단'을 목표로 1985년 창단했으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CBS, CTS기독교TV, 튀르키예 안디옥 광림교회 봉헌예배, 육군훈련소 위문찬양, 농어촌찬양선교 등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꾸준히 국내외 선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국제) 기독남성성가제를 네 차례나 개최하여 한국교회 남성성가단의 위상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는 축사를 통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성경 말씀처럼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의 사랑을 되새겨보는 음악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남성성가단과 탈북 여성들이 모여 창단된 물망초 합창단과 함께 협연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수고해 주신 단장, 지휘자 그리고 모든 임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유병권 기자

샤이닝 월드 THE V.I.P 오늘은 어린이가 주인공!





지난 5월 7일, 광림교회 밀레니엄공원은 광림교회 다음 세대인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해 교회학교가 준비한 '샤이닝 월드 THE V.I.P' 행사가 진행됐다. 공원 곳곳에는 영아부터 초등부 아이들까지 흥미롭게 즐길 수 있도록 미니기차와 에어바운스, 다양한 게임부스가 설치됐다. 샤이닝 월드는 총 3번에 나눠 개장을 했는데, 각 부서에서 예배를 마친 아이들이 한데 모여 밀레니엄공원은 활기로 가득했다. 연휴 기간동안 날씨가 궂어 염려가 많았는데, 수백명의 아이들이 샤이닝월드를 찾았고 25명의 새친구가 귀한 발걸음을 했다.

유년부 권리나, 유치부 권조이 자매를 둔 8교구 안지혜 집사는 "3부 예배 후 밀레니엄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에어바운스와 열차 등을 타고 간식도 먹으며 너무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잘 놀 수 있게 날씨도 선선하고,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한 헌신을 아끼지 않는 수많은 손길이 있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즐기며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어요. 기쁨 가득한 날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라며 마음을 전했다.

한참을 신나게 뛰어논 아이들은 간식부스에 모여 떡볶이, 솜사탕, 슬러시, 팝콘 등을 먹고 마시며 에너지를 충전하고, 선물 부스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하며 행사를 알차게 즐겼다. 이번 행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스별로 담당 부서를 선정한 후 책임제로 운영했고, 운영요원과 안전요원을 적절하게 배치해 안전하게 행사가 잘 마무리됐다.

광림교회 교회학교 임재철 목사는 "행사 전날까지 비가 오고 바람까지 많이 불어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세팅 직전에 비가 그치고, 바람이 바닥을 잘 말려줘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당일 그늘막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약간의 구름이 그늘막이 되어주고 감사한 일이 참 많았던 행사였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덧붙여 "아이들이 보고 듣고 맡고 맛보고 오감으로 느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으로 오랫동안 기억되고, 그 기억이 또다시 하나님을 기대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혜선 기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5월 7일 주일, 2부·3부예배에서 김정석 담임목사의 집례로 21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박로하, (부)박영균, (모)최윤지


김태인·김태리, (부)김대섭, (모)홍영란


김우진, (부)김준겸, (모)신보람


문찬은, (부)문대호, (모)이고은


송지원, (부)송왕근, (모)원지선


정서우, (부)정현서, (모)정하영


김로은, (부)김찬우, (모)김주연


김하늘, (부)김한별, (모)김지현


한설아, (부)한 정, (모)김현아


오주안, (부)오민성, (모)최수현


이서이, (부)이경률, (모)이은경


임노엘, (부)임경철, (모)남지숙


구유진, (부)구종현, (모)김지은


김주은·김예은, (부)김성훈, (모)정지민


김명재, (부)김영훈, (모)임형진


이유준, (부)이아롬, (모)이원현


안리한, (부)안기범, (모)이은정


홍준의, (부)홍성하, (모)김찬미


문이준, (부)문찬웅, (모)서민정



한국 감리교회를 빛낸 해외선교사 14

메리 스크랜튼, 한국 근대 여성교육의 선구자 (2)



메리 스크랜튼(1832~1909)

메리 스크랜튼이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함께 조선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을 때, 그녀의 나이는 53세였습니다. 윌리엄 스크랜튼은 미국북감리교회의 의료선교사로 파송을 받았고, 메리 스크랜튼은 미국 감리교여성해외선교회(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사실 메리 스크랜튼이 선교사로 추천받았을 때 반대하는 여론도 많았습니다. 과부라는 것과 나이가 많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메리 스크랜튼이 파송을 받고, 또 한국 근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 평생을 교회에 헌신하며 살았고, 평소에도 선교에 매우 열정적이었으며, 또한 자신의 아들과 함께 조선 땅을 향할 결심을 했기 때문입니다.

메리 스크랜튼은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에 조선에 들어왔지만, 이화학당을 비롯한 진명여학교, 수원 삼일소학당(매향여자 중·고등학교), 달성매일학교, 여성 간호사학교 등 여성교육과 의료교육을 위한 시설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메리 스크랜튼은 '한국인을 더 나은 한국인으로'(Koreans better Korean's only)라는 교육이념을 갖고 한국 학생들을 서양의 문물에 무조건적으로 맞추기보다는 한국인과 여성으로서 긍지와 존엄성을 갖게 하는 교육을 했으며, 이화학당의 교장에서 물러난 후에도 더욱 다양한 여학교를 설립하는데 조력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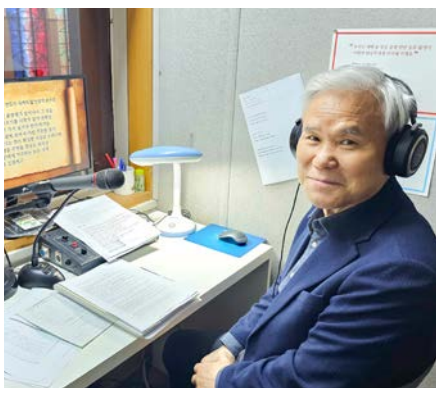
메리 스크랜튼은 아들 윌리엄 스크랜튼과 함께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 특별히 여성을 향한 사역에 집중했고, 의료선교를 통해 복음전도하는 것을 귀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장로교의 첫 선교사인 알렌 박사(Dr. H. N. Allen)는 스크랜튼 목사가 광혜원이라는 정부병원에서 일하기보다는 독자적으로 가난한 곳을 찾아가 시병원을 세운 이유를 순수한 복음전도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러워했습니다. 이처럼 스크랜튼 모자의 시선은 항상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그리고 복음전도를 향해 있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튼이 25년간 조선 땅에서 이룬 선교사역은 한국 근대화의 귀중한 씨앗이 되었으며, 그녀는 감리교회의 선교사일 뿐만 아니라 조선의 모든 기독교 여선교사들의 대모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09년 그녀가 임종했을 때, 상여를 따르는 무리가 8Km나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메리 스크랜튼의 유해는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광림교회 숨은 조력자 ⑦ 동시통역위원회

이종국 권사 "성령의 감동이 잘 전해질 수 있기를"



2002년부터 봉사한 일본어 통역봉사 계기는?

1987년부터 광림교회에 출석하며 막연하나마 예배를 위해 시간을 드려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호기심과 관심으로 주보를 읽던 중 일본어 통역을 한 분이 계속 하시는 것을 보고 힘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마침 일본어 통역 모집 광고를 보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20여 년간 자리를 지킬 수 있어 감사합니다. 통역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지내온 시간 속에서 저 자신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통역과 예배, 설교 통역의 차이점이 있다면?

일반 통역과 설교 통역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이해를 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준비과정, 통역 방식, 걸리는 시간 등이 대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일반통역과 설교통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통역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통역의 목적은 매끄러운 소통이기 때문에 통역자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역을 통해 상호 이해도를 높일 수 있고,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나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부연설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반면 설교 통역의 목적은 예배의 은혜입니다. 예배 통역자는 임의 해석의 여지없이 설교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역자는 더욱 설교본문의 성경 말씀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통역 봉사를 할 성도들을 위한 도움말은?

동시통역에 성도님들의 지원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외국어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평소 한글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역 봉사는 언어를 통해 하나님 말씀 즉 설교 내용을 전달하는 것을 돕는 역할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충분히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성령의 감동이 잘 전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역실 환경 개선과 통역 담당자들을 위한 관심과 격려로 지원해 주신 박영준 장로님(동시통역위원장)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신 은사로 쓰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날까지 통역 봉사를 계속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희 기자

청장년부

연결고리의 사명을 완성해 갑니다





2023년 광림교회 청장년부는 총력전도주일을 맞아 <Let's Go Festival>을 준비했습니다. 매년 같은 타이틀이지만, 올해는 페스티벌이란 단어처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익숙해진 서로의 거리두기를 깨뜨리기 위해 오랜 기간 함께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청장년부는 연결고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청장년부는 청년과 장년의 연결고리로서 35세 이상 미혼인 청장년 1부, 자녀, 부모, 부부라는 가정의 연결고리인 청장년 2부로 구성됩니다.

현재 청장년부의 구성원은 대한민국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경험하는 분들입니다. 저출산, 비혼, 자녀 양육, 사교육, 내 집 마련, 고물가 등 현실적인 걱정, 근심이 많기에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가 더욱 절실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위한 영적인 오아시스가 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특히 이번 렛츠고 페스티벌은 담임목사님께서 전체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더욱 행사가 빛났습니다.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소식에 예배 후 식사의 불편을 겪던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셨고, 공동체를 소개받은 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청장년 1부는 크리스천인 개그우먼 김선정씨의 진행으로 1시간 가량의 레크레이션을 했습니다. 평소 어색한 관계가 있었지만, 웃으며 게임을 하면서 마음의 벽들이 차차 무너졌습니다. 특히 서로를 향해 축복 찬송을 불러주며 기도할 때 억눌렸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새로 참여한 분들 중 눈물을 훔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평소 직장, 가정, 개인 스스로 받았던 많은 부담의 짐들을 하나님이 함께 짊어지신 것 같습니다.

청장년 2부는 함께 식사 후 각 속회별로 밸런스 게임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지만 서로 너무 달랐기에 다름을 인정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김소연 자매의 간증, 임원들의 레크레이션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감동과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스, 속회, 친구, 가족을 위한 포토존 등도 준비되어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렛츠고 페스티벌은 약 260명(성인 176명, 자녀 84명)이 참석하며 180명 정도를 예상했던 저희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참여했던 분들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적 가치관으로 살고 싶지만 코로나 이전보다 현실은 더 빡빡해졌고, 예전같은 믿음이 아니어서 이겨내기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고, 신앙 공동체의 필요성도 알지만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만든다는 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부모, 나, 자녀. 모든 관계를 잇는 한국의 3040대. 청장년부는 연결 고리의 사명을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주변에 흘려보내 살리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연결고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함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유용찬 목사(청장년부)

목회현장

LFC 청년부의 브랜드와 브랜딩



김주송 목사 (청년부)

광림교회 청년부에서 목회를 한지 이제 만 4년이 다 되어갑니다. 2019년 9월, 청년부에 부임하고 난 뒤, 코로나19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코로나와 함께 3년이란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기간동안 LFC 공동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고, 모든 영역에서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내실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제 고민은 LFC 청년부의 브랜드와 브랜딩입니다. 여기에서 브랜드(Brand)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는 총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브랜딩(Brand+ing)이란, '우리는 이런 브랜드야'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브랜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이제는 청년부의 정체성과 사명을 담고 있는 브랜드(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딩(홍보)을 통해서 세상에 속한 청년들에게 홍보하고 초청하려고 합니다.

LFC 공동체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에게 청년부를 자랑해보라고 하면 5가지로 답변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예배'입니다. 평일에는 목요쉐키나워십, 주일에는 5부예배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두 번째는 '진솔한 나눔이 있는 속회'입니다. 속회별로 평균 4~1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삶의 이야기, 나에게 주신 말씀과 결단,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를 실시합니다. 믿음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신앙적인 성장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훈련'입니다. 새가족교육(4주), 세례교육(1주), 말씀교육(LBS/12주), 기도교육(쉐키나워십), 예수제자캠프(JDC/8주), 연합리더교육(월1회)을 통해서,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기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선교'입니다. 예루살렘(강남/사랑트리캠페인), 유다(감리회/국내교육선교), 사마리아(한국교회/성령한국청년대회), 땅 끝(세계 열방/단기선교, 100교회 건축)까지 선교합니다.

다섯 번째는 '나의 이야기를 통한 관계성 전도'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켜주신 예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예수님, 광림교회와 청년부 자랑하기! 4가지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간증)를 직접 손으로 작성한 전도책자를 제작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관계성 전도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고 20분간 기도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청년부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예정입니다.

앞으로 LFC 공동체의 6가지 '자랑'이 담겨 있는 청년부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효과적인 '브랜딩'을 통해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청년들과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를 떠난 가나안교회 청년들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땅 끝까지 선교하는 LFC 청년부가 되기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광림서교회

함께 모여 하나되는 5월 가정의 달





광림서교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 유아·유치부 친구들 모두 모두 모여라(놀이동산), 신나는 레크레이션, 달란트잔치 등을 통해 아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물하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는 믿음의 다음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을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버이주일을 통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부모님께 감사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75세이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교사, 지구장, 속장, 선교회장 등 각 속회와 선교회, 기관을 위해 수고하며 헌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김희진 교수님(6교구) 초청 세미나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함께 모여 하나되는 시간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한 모든 시간을 통해 광림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되며, 서로 사랑하고 감사하며 축복하는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아라 전도사(광림서교회)

광림북교회

전도대상자와 함께한 총력전도



지난 4월 총력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광림북교회에서는 다양한 시간들을 통해 전도대상자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월 다니엘기도회를 시작으로, 남선교회 볼링대회(4/22), 트리니티 찬양단 초청 찬양의 밤(4/23), 총력전도를 위한 걷기대회(4/27) 등 총력전도주일 전도대상자들이 교회로 오기 전에 문턱을 낮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북교회에서 처음으로 열린 볼링대회에서는 스데반, 디모데, 바울, 웨슬리까지 남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즐거운 교제의 장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고령의 연세에도 불구하고 웨슬리 선교회 권사님들께서는 현란한 기술을 보여주시며, 여전히 청춘 같은 솜씨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볼링대회를 계기로 다양한 연령의 남선교회 회원들이 교제하고, 남선교회 활성화를 기대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트리니티 찬양단 초청 찬양의 밤은 오랜만에 북교회 성도님들이 찬양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트리니티 찬양단의 표정과 화음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감동을 전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찬양의 밤은 북교회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 번 광림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새가족초청 총력전도를 위한 걷기대회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다녀왔습니다. 북교회 최고령자이신 임양재 권사님께서 3.6km의 산과 높은 언덕의 구간을 완주하시며, 함께 한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밖으로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수술 후 회복 과정으로 인해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그리고 전도대상자분들과 함께해서 더욱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유민재 전도사(광림북교회)



어버이날 맞아 어려운 어르신에게 사랑을 전하다



사회사업위원회(위원장 최제환 장로)는 어버이날인 5월 8일 오전 5시 30분부터 광림교회 웨슬리관 입구에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사랑의 돌봄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앞서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나온 유제석 목사는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많은데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란다. 이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고 선을 베푸는 광림교회 사회사업위원회에 하나님의 축복과 이른 새벽 나와 수고를 하는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원한다"고 축복기도를 해 주었다.

지하철 도착시간에 맞춰 5시40분쯤부터 마스크를 쓴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모이더니 금세 많은 인원들이 도로에 길게 줄을 이어갔다. 평소 수요일에 하던 행사를 월요일로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보다 많은 250명 어르신들이 찾아 왔는데 이들에게는 떡과 한방파스, 사탕, 두유 및 현금이 지급되었다. 선물 중에 두유 및 사탕은 김명진 권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김 권사는 "호렙산기도회 때나 예배 중에 은혜되는 말씀을 메모했다가 프린트하여 사탕포장지에 넣는데 오늘은 어버이날이라서 카네이션 꽃그림을 함께 새겨 넣었다"고 했다.

최제환 장로는 "오늘 행사에 앞서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성도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사회사업위원회에 후원금을 보내왔는데, 그분은 조금이나마 예수님 사랑을 전파하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전해왔다. 코로나 이후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행사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광림교회에서 계속할 수 있는 것도 다 이러한 후원자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며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이득섭 기자

청년부

몽골, 일본, 태국, 네팔 단기선교팀 모집


태국 루엄타이 교회



네팔 교회

광림교회 청년부는 이번 8월과 9월 몽골, 일본, 태국, 네팔 4개의 지역을 위한 단기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8월 9일 ~ 16일까지 광림어잉게렐 미션센터와 어르비트 미션센터에서 열릴 노방전도와 전도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말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 선교를 다녀오는 세 개 나라 중 일본은 야마가타 광림교회를 방문하여 새 삶을 위해 이민 온 한국 성도님들을 위한 예배사역과 노인복지 사역, 땅 밟기 기도회 및 노방전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포프라 지역 루엄타이 교회 등 고산지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다음세대를 위한 어린이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팔의 경우 네팔 감리교 신학교 신학생들과 어린이들을 위한 아카데미 및 성경학교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몽골선교팀을 신청하며 준비 중인 이혜린 자매는 "청년부에서 몽골선교를 다녀온 이후부터 제 마음속에는 늘 몽골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번 선교를 통해 몽골의 아이들,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예배함의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일본선교팀을 신청하여 준비 중인 김하연 자매는 "일본선교는 제가 처음으로 다녀왔던 해외선교였습니다. 선교를 다녀오고 저는 어린 아이만큼 어르신들을 섬기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열린 일본선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달하고 싶습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년부는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선언처럼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부가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영욱 전도사(청년부)

선교지 기도제목

〈몽골〉
1. 몽골선교 기간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길
2. 몽골 교회 영적 리더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길
3. 어르비트센터의 NGO 사역을 통해 몽골 선교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열매가 맺히길
4. 담당 목회자(이채욱 선교사, 어등가와 선교사)와 가정이 영육간에 강건하길

〈일본〉
1. 일본 북방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2.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3.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본인에게 전하여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도록
4.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도록
5. 담당 목회자 도신우 목사 가정이 늘 영적으로 깨어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길

〈태국〉
1. 루엄타이 교회가 있는 포푸리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되길
2. 몽족마을 주민들을 위한 평강의 집 짓기 프로젝트를 위해
3. 어린이 기숙사 부지 구입 및 현지 아동 결연 후원을 위해
4. 방삼열, 전지혜 선교사의 언어사역을 위해

〈네팔〉
1. 네팔 감리교신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 네팔 세계선교교회와 네팔의 모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3. 네팔 수먼 감독과 그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요

광림교회 교회학교 학부모 기도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광림교회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학부모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7월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며 시작된 중고등부 학부모기도회가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오고 있으며, 미취학부와 아동부에서도 올봄부터 학부모기도회를 시작했다.

미취학부의 아하와(AHAVA) 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11시 두란노 강의실에서, 아동부의 SSG쓱(So Special Grace) 기도회는 매달 첫째 주 수요일 11시 교육관 5층 소년부실에서, 중고등부 기도회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 14시 두란노 강의실에서 열린다.

찬양으로 시작하는 기도회는 각 부서 전도사의 말씀 후, 교회학교와 교육국 행사, 광림 재단,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

첫 기도회부터 지금까지 중고등부 학부모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임지현 집사는 "작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자녀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학부모가 함께 모여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친한 어머니들 위주로 시작된 기도회는 점차 확대되어 학부모기도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처럼 삼삼오오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심을 경험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도 있는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이의 하나님이 되길 바라는 갈급한 마음으로 참석한 기도회를 통해 지금까지 저를 비롯한 많은 어머니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라며 학부모기도회 참석 소감을 전했다.

박지상 목사(교육2부)는 "힘겹게 팬데믹을 견뎌낸 우리 아이들이 다시금 현실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교우관계, 학업, 진로 등 인생의 당연한 과정이지만 힘겹게 견뎌내야 할 숙제들입니다. 이 시기 부모님의 기도는 아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나아가 부모님과 아이 모두 주님과의 관계가 견고해져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학부모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힘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자녀의 비전을 채워나가시길 소망합니다"라며 자녀와 교회학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깊은 은혜의 자리에 학부모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박희윤 기자

신앙 간증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삶



스스로 사람을 좋아한다고 생각했고 청년부에 왔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던 언니 오빠들을 떠올리며 '광림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웃는 얼굴로 맞이해주자!' 다짐하며 새가족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찾아오시는 새가족들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사람을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주신 은사이고, 내가 웃음이 많았던 것도 주님이 허락하신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기쁨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혼자 새가족들에게 다가갔을 때에 반응이 없으면 실망하고 상처받고 좌절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역을 해 온 동역자 친구들의 여러 가지 사례들과 중보기도를 통해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에 우리가 쓰임받음을 다시금 깨닫고 주님을 찾는 새 힘을 얻어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맡게 된 속원이 다시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다시금 만나주시길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심방 문자에 답장해 주는 새가족분들에게 더욱더 큰 고마움을 느끼며 교육을 수료하고 일반 속회로 배정되면 귀한 한 영혼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심을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더 알게 될수록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고 늘 주님 곁에 붙어있길 소망하게 됩니다. 나의 완악함과 내 안의 연약함 들은 주님 앞에 나아와 정결되고 강건해집니다.

매일 주님 앞에서 거듭나는 삶 속에서 여전히 무너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지만 이제는 이런 모습들 또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전 15:10)



한영은 속장(청년부)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성경 이야기 30



성전 파멸을 예언한 예수 마 24:2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마 24:2)

예수는 곧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올랐다. 그때 제자들이 웅장한 성전을 가리켜 보이며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다. 그러자 예수는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저 성전의 돌 하나 하나가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수의 말에 제자들은 무척 놀랐다. '도대체 어떤 재앙이 일어나기에 저 견고한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일까?' 나중에 예수가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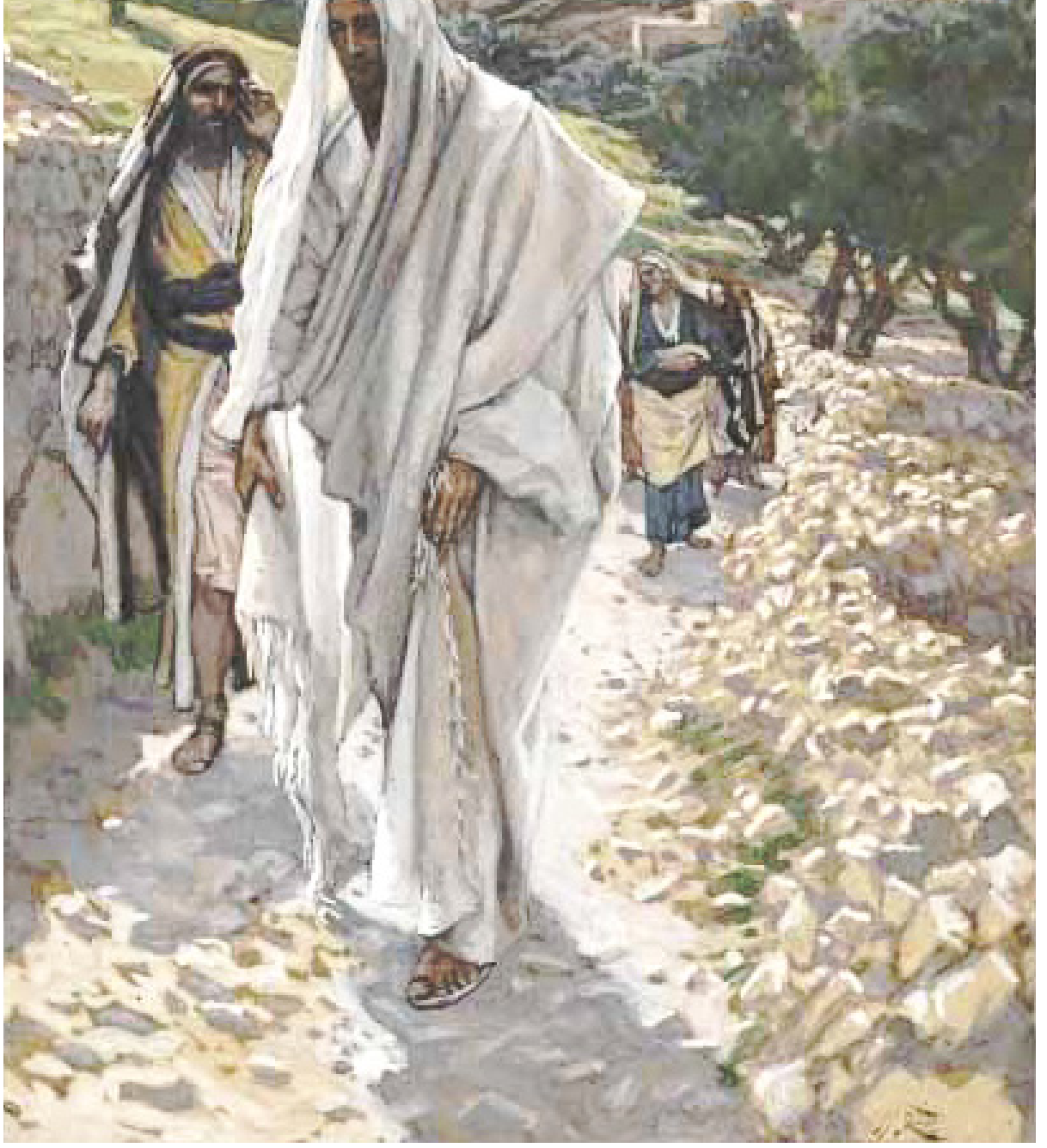
예수가 대답하였다. "너희는 자칭 그리스도를 조심하여라. 그들은 정체를 숨기고,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하고 많은 사람을 현혹할 것이다.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또 곳곳마다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닥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를 믿으며, 내 이름을 전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 혼란을 틈타 거짓 설교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악이 퍼져 많은 사람을 파멸할 것이며 사랑은 식고, 배신이 자행되며, 큰 고통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대로 견뎌라.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결국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재난을 다 아는 듯, 예수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이렇게 큰 환난은 이 세상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 환난의 날들을 그대로 둔다면 아무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 환난을 덜어 주실 것이다. 나의 재림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임할 것이다."

예수의 말은 앞으로 재림하는 그리스도는 지구의 동서 어느쪽에서도 모두 볼 수 있다는 의미였다. 큰 환난에 대해서 예수는 말을 이었다. "그 날짜와 시간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인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 너희는 각별히 조심하여라.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임무를 맡긴 것과 같다.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너희는 모른다. 그러니 너희는 깨어서 너희 자리를 지켜라. 깨어 있어라."

예수는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이면 감람산에서 지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새벽같이 일어나 성전에 가서 예수의 가르침을 받았다.

광림뉴스레터



▲ **감람산을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_성전에서 설교를 마친 예수 그리스도가 감람산의 겟세마네 언덕에 오르는 장면이다. **제임스 티소의 작품**

한눈에 명화로 보는
〈신약·구약성경〉
빛의 숲 서점 판매 중

※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출판사 아이템하우스에 있으며 광림뉴스레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편집인 유용찬 | 위원장 박영준 | 편집디자인 유심원 | 후원 남선교회총연합회·실업인선교회
기자 | 김혜경 박신애 박희윤 백명순 변영혜 소현수 안미영 유병권 위선미 이득섭 이상희 이정순 한혜선 | 편집 문화홍보실 | 인쇄 현대원색문화사
www.klmc.church에서 e-book 또는 https://www.facebook.com/kwanglimchurch로 광림뉴스레터를 볼 수 있습니다